

광주, 경매 낙찰가율 특·광역시 중 최고

9월 151건 중 70건 진행 90.5%...전국 평균보다 24% ↑

토지·상업시설 상승 주도...주거시설 광주·전남 소폭 하락

지난달 광주 지역의 경매 평균 낙찰가율이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토지는 낙찰가율이 100%를 웃도는 등 경매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13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발표한 '9월 지지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지역 법원경매는 151건 중 70건이 진행됐으며, 평균 낙찰가율은 90.5%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로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서면 낙찰된 물건의 입찰 가격이 감정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울산(88.0%), 서울(83.6%), 부산(77.1%), 인천(71.0%),

대전(70.1%), 대구 (65.7%) 등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 낙찰가율(66.5%)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광주 지역의 경매 시장은 토지와 업무 상업시설 낙찰가율이 급증하며 주도했다.

토지경매는 25건이 진행돼 절반이 조금 넘는 13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50.3%포인트 상승한 143.8%를 기록했다.

업무·상업시설은 53건이 경매 진행돼 이 중 14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20%포인트 이상 상승한 91.9%를 기록했다. 제주(109.2%), 울산(96.4%)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다.

반면 주거시설은 71건이 경매 진행돼 이중 42건이 낙찰됐다. 평균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94.3%를 기록해 대조를 이뤘다.

전남 역시 토지 낙찰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총 501건이 경매에 나와 261건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2.6%포인트 상승한 95.9%를 기록했다. 평균응찰자수는 3.4명이었다.

토지 낙찰가율은 제주(162.9%), 세종(105.7%)에 이어 특·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서 세번째로 평균 82.2%를 상회했다. 또 4월(95.7%), 5월(90.0%), 6월(102.0%), 7월(92.3%), 8월(93.3%) 등 6개월 연속 90% 이상 낙찰가율을 기록 중이다.

업무·상업시설은 85건 중 18건이 낙찰(21.2%)됐으며 낙찰가율은 56.5%로 집계

됐다.

반면 주거시설은 106건 경매 진행돼 53건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12.9%포인트 하락한 71.3%에 그쳤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토지 평균 낙찰가율이 90%를 돌파하면서 사실상 2007~2008년 경매 광풍 시기에 기록했던 거의 모든 경매 최고가 기록들이 갱신됐다"면서 "하반기까지 물건 감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각종 규제 신호가 보는 만큼 낙찰가율에 조정이 있을지는 연말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전국 법원경매 진행 건수와 낙찰건수는 각각 9379건, 3933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전국 평균 낙찰가율은 66.5%로 전월대비 6.4%포인트 감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15.44 (-18.29)
- ↓ 금리 (국고채 3년) 1.32% (-0.03)
- ↓ 코스닥 663.09 (-6.86)
- ↑ 환율 (USD) 1135.90원 (+12.30)

'부진의 늪' 현대·기아차

신용사장 침체·내수 악화...IMF 이후 18년만의 역성장

현대차가 깊은 부진의 늪에 빠졌다. 해외에서 신용사장의 장기침체 등 여파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데다 국내에서도 판매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등 '내외외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량은 1998년 이후 18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영업이익률도 5년 새 반 토막이 났다.

13일 자동차업체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27일께 올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이 의무화된 2010년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 가장 저조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HMC투자증권은 지난 11일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25.3% 줄어든 1조1232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현대차의 분기별 영업이익은 2012년 2분기에 2조537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들어 9월까지 국

내외에서 562만1910대(현대 347만9326대, 기아 214만2584대)를 팔았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줄어든 수치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난해 판매실적인 801만5745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의 판매 감소는 IMF 금융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처음이다. 18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사정은 기아차도 마찬가지다. 기아차의 영업이익률도 2011년 8.1%에서 올해 5.2%로 급락했다.

현대·기아차의 수익성 악화는 신용국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글로벌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케팅 비용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18년 만의 첫 판매량 감소와 영업이익률 하락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고급차 중심의 판로 개척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고급차는 중소형차에 비해 수익성이 훨씬 높아서 고급차의 판매 비중 확대는 영업이익률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현대차 오늘 임금협상 마지막 관문

노조 잠정합의 2차안 찬반투표

현대차 노조의 오는 14일 올해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앞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노조가 더이상 명분도 약한 무리한 파업을 강행하지 말고 합의안 추인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체 조합원 4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조항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금협상을 최종 마무리짓게 된다.

개표 결과는 이날 자정을 넘겨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2일 기본급 7만 2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이 담긴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기본급 인상은 지난 8월 말 부결됐던 1차 잠정합의안(6만8000원)보다 4000원이 인상됐고, 전통시장 상품권은 20만원 지급에서 50만원 지급으로 30만원 인상됐다.

노조가 이번 2차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 것인 관측이 우세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회사뿐 아니라 국내 자동차산업, 나아가 수출부진 등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도 부결된다면 현대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를 감당할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이미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지난 7월19일 이후 24차례 벌어진 노조의 파업으로 4만20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3조1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한편 임금단체협상과 관련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 지부는 13일 오후 18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25%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의 연 1.25%로 동결됐다.

한은은 13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6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9년 6개월 만에 동결됐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무엇보다 금중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연말에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에도 가계부채 급증추세에 제동을 걸지 않고 있어 금융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가계의 카드사용액까지 합친 가계신용잔액은 올 상반기 동안 54조원이나 늘어 6월 말 현재 125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러 7월에는 은행의 가계대출이 6조 3000억원 늘었고 8월엔 8조6천억원, 9월에도 6조1000억원이나 증가하는 등 가계 빚의 급격한 증가세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소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내외금리 차가 벌어져 국내 금융시장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고 금융시장이나 신용경색이 충격 받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한은은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렵다.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 시장금리 등이 상승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막대한 가계부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연합뉴스



광주은행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수료식.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 13일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김한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실 1기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문화교실은 지난 8월부터 총 5회에 걸쳐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메이크업, 캘리그래피, 플라워 자개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수업이 진행됐다. <광주은행 제공>

갤노트7, 삼성 신형 폰으로 바꾸면 10만원 지원

타사 폰으로 교환엔 3만원...삼성전자, 12월31일까지 교환·환불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을 자사 신형 스마트폰으로 교환하는 소비자에게 3만원 상당의 쿠폰과 통신비 7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갤럭시노트7을 환불하거나 타사 제품으로 교환해도 3만원 상당의 쿠폰은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 갤럭시S7엣지, 갤럭시노트5 등 자사 최신 스마트폰으로 교환하는 소비자에게 총 10만원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당초 국내에서 자사 제품으로 교환하는 소비자에게만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환불을 포함한 갤럭시노트7을 보유했던 모든 고객으로 3만원 쿠폰의 혜택을 확대하고, 추가로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는 소비자에게 7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통신비 지원에 관한 세부 절차를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모바일 이벤트몰은 삼성전자 고객을 위한 전용 쇼핑몰로, 생활용품, 뷰티·패션용품, 식품 등을 판매한다. 삼성페이, 삼성 멤버스 등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나 환불자 등에게는 외부 접속 링크를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도 전액 환불과 함

께 희망 고객에 한해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과 갤럭시S7 엣지로 교환해주고, 차액과 25달러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두 차례 리콜로 소비자 심각한 불편을 야기한 점을 고려, 국내 갤럭시노트7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을 전반적으로 강화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노트7으로 큰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해당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갤럭시노트7 단종을 결정한 삼성전자는 12월 31일까지 구매처에서 갤럭시노트7을 교환·환불한다. /연합뉴스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용자 - 4억 2500만원
- 보 5천만원에 월세 200만원 보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속 박

호텔급 대형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용 6억 3000만원만 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토지매매, 20억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 33억원**
- **기한 - 10월 31일까지**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경매투자자

- ▶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